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재현

문화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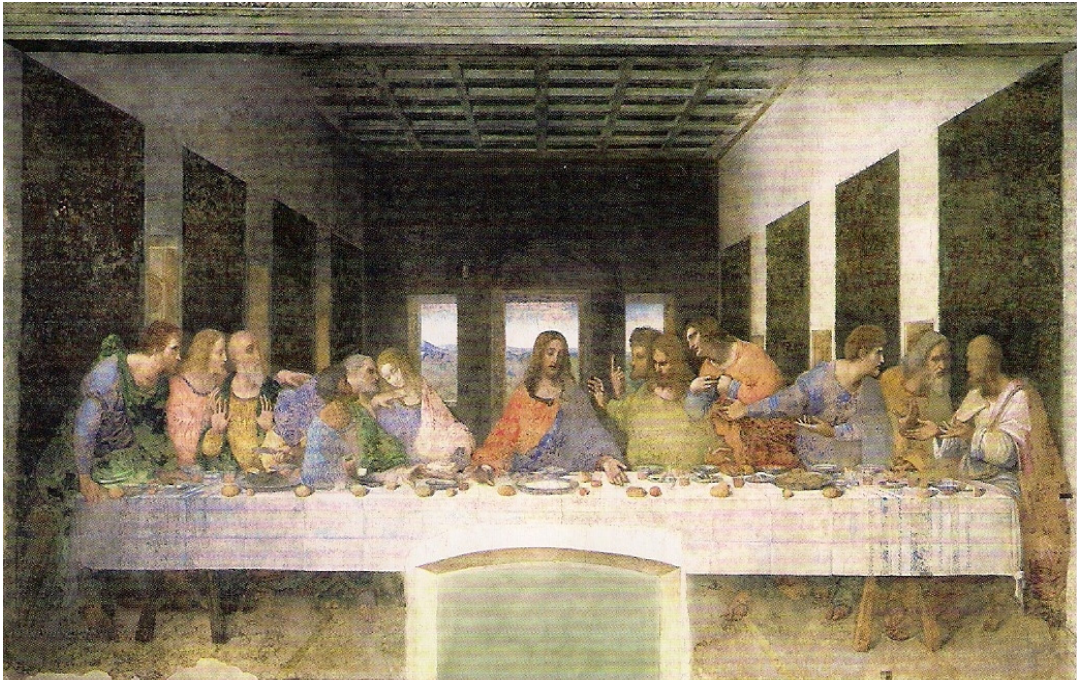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의학, 요리, 식물학, 천문학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창의력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켰던 천재다. 그가 예술과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독창적인 창의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메모하는 습관 때문이었다. 그는 항상 작은 노트를 허리춤에 지니고 다녔다. 노트에는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시각을 메모했다.

르네상스 최초의 대가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발생지인 이탈리아 피렌체에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여 아버지의 친구였던 화가 베로키오에게 그림을 사사 받았다. 그곳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 해부학과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기법을 터득하게 되어 1472년 비로서 화가로서 피렌체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고향 피렌체에서 그의 천재적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는 서른 살 때 밀라노로 이주해 루도비코의 일을 하게 되면서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한다.

밀라노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전 예술은 완성되었는데 15세기 초 이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노력해온 사실 기법을 집대성하여 명암에 의한 입체감과 공간표

현에 성공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명성을 얻은 작품이 <최후의 만찬>다. 이 작품은 최후의 만찬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12사도들의 반응을 묘사했다.



〈최후의 만찬〉-1495~1498년, 프레스코화, 460*879,
밀라노 산타 마이라 델 그라치에 수도원 소장

빵과 포도주가 놓여 있는 식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놀란 12명의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열려 있는 창문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종교화에서 보통 볼 수 있는 둥근 후광을 그리지 않고 창문의 햇살로 후광을 표현했다.

예수 그리스도 옆 요한은 조용하게 앉아 있고 그 옆 성미 급한 베드로는 유다를 밀쳐내며 칼을 잡고 있다. 유다는 이 작품에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있지만 돈주머니를 쥔 손이 그의 배신을 가리킨다.

화면 왼쪽 예수 그리스도 옆에 손가락을 들고 있는 남자는 토마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그의 몸에 난 상처에 손가락을 넣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후

에 그의 행적을 나타내기 위해 손가락을 세워서 묘사했다. 평온한 자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동요하고 있는 12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작품을 완성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심리 묘사가 뛰어난 이 작품은 훼손이 심해 당시 제작했을 때 사실적으로 그려진 장면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루도비코의 실각으로 밀라노를 떠나 1500년 마흔 여덟 살에 고향 피렌체로 돌아오지만 르네상스 전성기의 피렌체는 아니었다. 피렌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제작한다. 이 작품은 탁 트인 실내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머리를 베일로 덮고 복잡한 자수로 장식된 어두운 색의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 여인을 그린 초상화다.

이 작품의 모델 모나리자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서명이나 날짜가 기록되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화가가 그림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 작품의 탄생하게 된 배경은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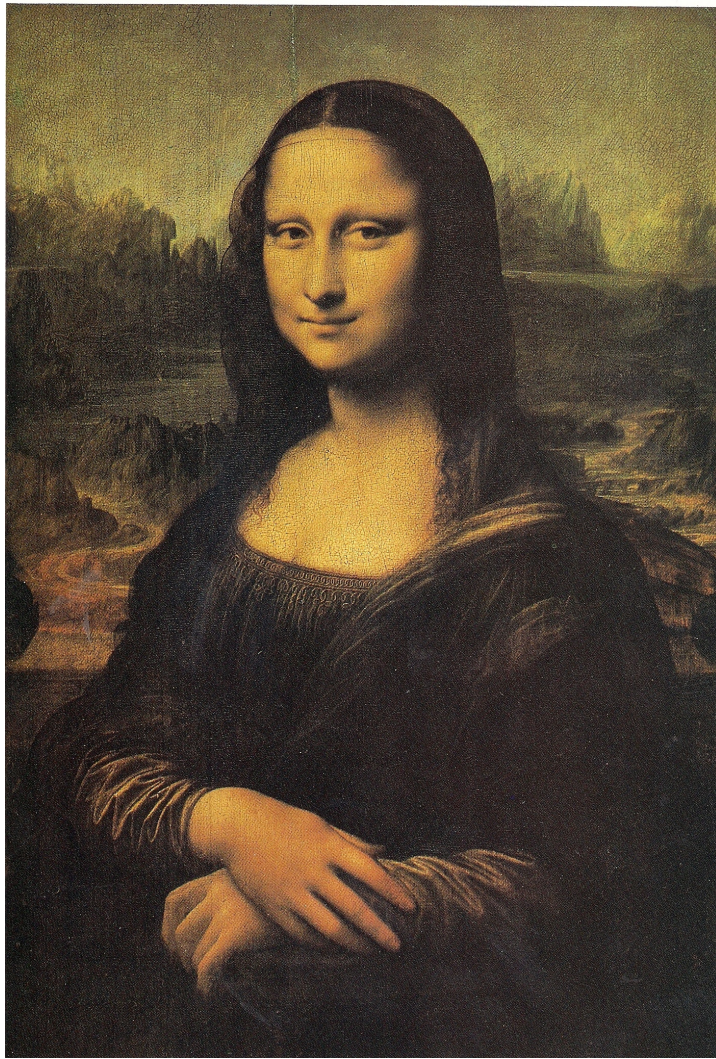
모나리자의 모델은 피렌체 공화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상인 조 콘다가 아내 리자가 아들을 낳기 전에 집을 구입해 집안을 장식하기 위해 초상화를 의뢰한 것이라는 배경이 가장 유력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공식 초상화의 우울한 분위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악사와 광대를 화실로 초청해 모델의 순간적인 표정을 포착해 스케치했다. 모델의 긴장을 풀기 위해 광대와 악사를 동원했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고통의 긴 과정 속에 탄생했다.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는 것은 16세기 당시 여인들은 눈썹을 그리지 않는 것이 유행이었다. 모나리자가 입고 있는 짙은 색 옷은 당시 결혼한 여자들이 입었던 옷이다. 머리에 쓰고 있는 얇은 색 베일은 그녀가 상중이라는 것은 암시하고 있어 리사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설이 제기 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본 풍경들을 상상해서 그린 것이다. 상상속의 풍경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린 계절이나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화면 왼쪽 배경에 있는 돌산과 작은 오솔길과 오른쪽 말라붙은 강바닥이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저수지와 연결을 확실하지 않다. 이처럼 황량한 풍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이전에 종교화에서 시도했었던 것으로 인간의 잠재성을 의미한다.



〈모나리자〉-1503~1506년 경,목판에 유채, 77*53,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초상화에 배경으로 풍경을 사용한 것은 플랑드르 지방에서 유행하던 방식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플랑드르 거장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풍경을 배경으로 한 초상화를 제작하면서도 그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인물을 화면 앞쪽으로 더 가깝게 배치했다.

또한 윤곽선을 강조했던 이전의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과 달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에서 명암법을 이용해 풍경과 인물이 구별 짓기 어려울 정도로 일치감을 보여주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작품에서 윤곽선이나 경계선이 없이 어두운 밑바탕에서 시작해 반투명 유약으로 칠해나가면서 입체감이 느껴지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다. (스푸마토 기법이란 색과 색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흐릿하게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제작하는 동안 피렌체 정부 청사인 베키오 궁전을 장식할 대벽화 <앙가아리 전투>를 의뢰받았기 때문에 초상화 완성을 서두르지 않았다. 또한 그는 화가는 작품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모나리자>를 끊임없이 그리고 수정하고 덧칠했지만 결국 완성하지는 못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년에 프랑스로 가져온 <모나리자>는 킬리르 궁의 나폴레옹 개인 침실에 걸려 있다가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져 18세기에 최초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 그 이후 <모나리자>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1911년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탈리아인 유리 제조공 페루자에게 도난당한 사건 때문이다. 1910년 말 미술품에 대한 도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자 루브르의 책임자는 중요 작품에 보호 유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페루자는 작품 보호 유리 케이스를 만드는 기술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모나리자>가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체가 분노했다. 결국 1913년 페루자는 자신의 아파트에 숨겨 놓은 모나리자를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팔려고 내놓으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에서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지만 화가로서 대우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화가로서 자부심이 매우 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06년 밀라노의 프랑스 총독 샤를 당부아즈의 초청으로 다시 밀라노로 이주하지만 거기서도 냉대를 받는다.

말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보다 예술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었던 프랑스 프랑수아 1세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로 이주해 궁정화가가 된다. 그곳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의 예술세계는 인간과 자연, 예술과 과학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그는 과학과 예술의 세계를 통일하고자 했으나 점점 그 차이를 깨닫게 되어 두 세계를 초월한 미를 추구하게 된다. 완벽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회화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추구되었던 새로운 기법, 원근법과 명암법 등을 집대성한 데에 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조각과 전통적인 프레스코화 기법을 배척하고 표현의 자유를 추구했지만 당대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방면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전에 20여의 작품 밖에 완성을 하지 못했다. 